

11월의 사양관리

◆ 일반 사양관리

한해 동안의 목장경영을 정리하는 시기로 차기 년도를 위한 경영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목장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도출시켜 발전적인 방향의 목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조사원을 수입건초에 의존하고 있는 낙농가는 미국 항만회사의 직장폐쇄 및 수입 쿼터량의 조정 등으로 조사료 파동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고 값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확보된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자급 조사료 확보(벚짚 등)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료변경을 할 경우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 서서히 변경하도록 하며 MUN 검사를 받도록하여 사료배합이 적정인지 점검하여야 한다.

양질의 사일리지를 개봉할 때는 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관리가 나빠면 2차 발효 및 변질이 일어나며 소화율과 건물섭취량이 감소와 산유량 감소로 이어진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로 착유실 및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월동준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 송아지관리

기온이 떨어지므로 특히 초유 및 분유를 먹는 송아지는 보온 및 환기관리에 신경을 쓰고 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깔짚을 자주 바꾸어 주며, 바닥으로 올라오는 냉기 및 섯바람을 막아준다.

송아지 분만시는 서서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최대한 빨리 초유를 급여하고 남은 초유는 냉동실에 보관하여 초유를 먹일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보관한다.

송아지설사는 출생 후 10일 이내에 급성으로 다발하며 감염율과 치사율이 높다. 출생 후 초기에는 대장균 감염에 의하여 설사가 발생하며 이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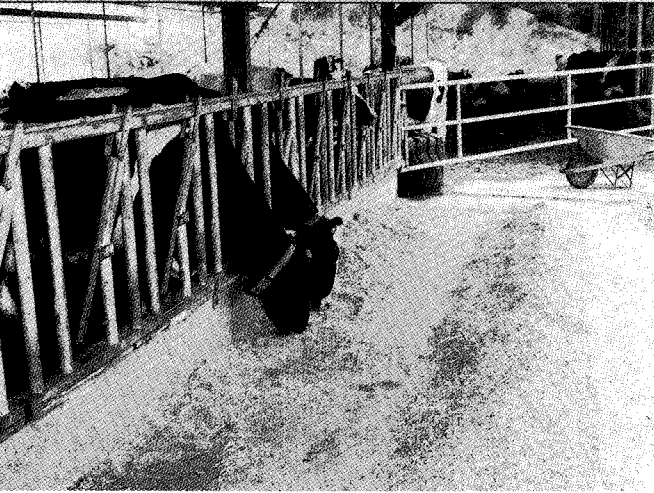
치료제는 주로 항생제를 사용하며 설사가 시작되기 전에 투약하고 탈수 중에는 링거액, 전해질, 간기능 강화제, 지사제 등을 주사하거나 먹이며, 어미소의 혈액 수혈도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의 하나다.

[자료제공 : 축산기술연구소 낙농과]

“ 한해 동안의 목장경영을 정리하는 시기로 차기 년도를 위한 경영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목장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도출시켜 발전적인 방향의 목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조사원을 수입건초에 의존하고 있는 낙농가는 미국 항만회사의 직장폐쇄 및 수입 쿼터량의 조정 등으로 조사료 파동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고 값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확보된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자급 조사료 확보(벚짚 등)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한다.

”



◆ 육종 번식분야

젖소의 관리가 방사기에서 사사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사내의 환기 및 보온에 유의하면서 셋바람의 유입을 방지하여 송아지 및 육성우의 호흡기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며, 운동과 일광욕을 충분히 시켜 지체 등 체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만이 훗날 타고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산수명도 길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일조량이 감소하면 번식우의 발정지속시간이 짧아지는 등 수태율의 저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정예정일을 미리 예측하여 세심한 발정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추위가 몰아닥쳐 우사 바닥이나 운동장이 얼기 전에 발굽을 손질할 대상우를 선정하여 매끄러운 우사바닥이나 날카롭게 얼어붙은 운동장에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사나 운동장의 퇴비는 얼기전에 제분작업을 실시하여 건조한 깔짚위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 지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동안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체형심사 등 젖소개량사업 참여와 수정, 치료기록 등 모든 기록이 빠짐없이 정리되어있는지 점검하여 연말 목장경영 분석에 대비해야 되겠다. (17)

(필자연락처 : 041-580-3384)

☞ 알 리 는 말 씀 ☞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월간 낙농육우」 또한 회원 여러분의 월간지로서 항상 회원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음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월간낙농육우」에서는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펜을 드십시오. 우리는 소를 키우는 농민이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격식도 필요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체험담, 미담, 제언, 기술정보, 수필, 시, 콩트 등을 제한없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에 대해서는 성심껏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정의 원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축산회관4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실